

# 경제개발구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 명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그것을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식의 경제개발구를 창설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아시아지역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과 지역의 기업체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개발구창설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이고있다.

현실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가지고 그것을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구는 경제활동질서가 국내의 다른 지역들과 달리 설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경제개발구는 해당 나라가 국내외의 투자를 끌어들이어 중요산업분야를 추켜세우거나 해당 지역 및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발전시킬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구획을 그어놓은 다음 거기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세우고 특혜적인 우대정책이 실시되는 지역이다.

경제개발구의 일반적특징은 우선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지역이라는데 있다.

경제개발구가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국가가 특별히 부여한 자격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투자도입국들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따로 설정해놓고 그안에서 일정한 경제적리익을 얻을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제정책을 실시한다. 경제개발구는 투자도입국의 관할권을 벗어나거나 관할이 덜 미치는 특수한 행정지역이 아니라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경제개발구의 일반적특징은 또한 특수한 우대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는데 있다.

특수한 우대를 실시하는것은 경제개발구의 기본징표이다. 그것은 특수한 우대를 실시하여야 외국기업가들에게 투자환경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기때문이다.

투자도입국들에서는 경제개발구에서 행정관리측면, 법적측면 등에서의 각종 우대정책들을 실시한다.

경제개발구의 일반적특징은 또한 특수한 관리제를 적용하고있는 지역이라는데 있다.

특수한 관리제를 적용한다는것은 경제개발구안에서 국내의 다른 지역과 다른 관리제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투자도입국들에서는 경제개발구안에서 특수한 경제정책실현과 특수한 우대적용의 담보를 위하여 국내의 다른 지역들과 이 지역을 격리시킬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개발관리기관에 경제무역관리의 측면에서 특수한 독자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경제개발구는 그 목적과 형태, 경영방식에 따라 나라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불리워진다. 그러나 대체로 그 목적과 경영방식에 따라 무역위주형, 생산위주형,

금융위주형, 과학기술발전위주형 등의 개별기능위주형의 경제개발구와 공업, 무역, 과학기술, 관광, 상업, 금융 등 여러 분야의 경제활동들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복합형의 경제개발구로 구분할수 있다.

무역위주형 경제개발구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거래를 원만히 할수 있는 국내의 유리한 지리적위치에 해당 나라가 법적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들과 격리시켜 설정한 특수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는 주로 무역상품의 가공조립, 수출입활동과 관련한 여러가지 특혜와 우대조치들이 실시된다.

무역위주형 경제개발구는 그 목적에 따라 자유항, 자유경제무역지역(항), 중계무역지대(항), 수입촉진지역, 통과지대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의 일정한 지역을 국제적인 무역중심지로 만들고 그를 통하여 나라의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뿐아니라 외화수입을 늘일 목적으로 이 지대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항목들을 면제, 감면시키거나 무역상품을 보관, 선별, 재포장, 조립, 가공하도록 허용하고있으며 그와 관련한 여러가지 특혜조치들을 실시하고있다.

생산위주형 경제개발구는 투자도입국들이 주로 제조업을 비롯한 공업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공공업부문들에 대한 외국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하는 지역이다.

생산위주형 경제개발구창설의 주요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앞선 기술 그리고 자기 나라의 로동력을 서로 결합시켜 수출가공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수출을 보다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늘이자는데 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창설된 500여개가 넘는 수출가공구들은 대체로 구매력이 큰 나라들의 주변지역, 상품들을 국제시장에 진출시키는데 유리한 지역들에 자리잡

고 수출주도형의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

금융위주형 경제개발구는 투자도입국들이 외국금융기관들과 투자가들이 여러가지 금융활동을 하기 위하여 창설한 특수지역이다.

금융위주형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비거주자(주로 외국금융기관들과 투자가들)들의 자금을 리용하여 나라의 외화수입을 늘이고 이 지대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매개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금융통화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비거주자들의 금융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들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금융위주형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고 운영하고있는것은 나라들사이에 국제금융관계가 전례없이 밀접해지는 반면에 막대한 자금이 보다 유리한 투자지를 찾아 나라들사이에 상시적으로 류통되고있는 현실적조건과 관련된다.

국제금융제도의 현 실태를 반영하고있는 금융위주형 경제개발구는 다른 경제개발구와는 달리 그 창설지역이나 방식, 외국금융기관들에 대한 투자도입국정부의 관리와 통제, 거래방법과 형식 등에서 다른 특성을 띠고 창설운영된다.

과학기술발전위주형 경제개발구는 투자도입국이 외국의 자본과 선진과학기술을 끌어들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집약형산업을 건설하며 첨단기술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국내에 창설하는 특수한 지역이다.

과학기술발전위주형 경제개발구는 초기에 해당 나라가 과학기술연구기관들과 현대적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생산단위들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생겨났다. 그후 과학기술발전형 경제개발구는 다른 나라의 앞선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끌어들이고 연구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제적

인 과학기술연구 및 개발지역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오늘날 과학기술발전위주형 경제개발구들은 정부,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 첨단기술개발능력을 가진 기업체들사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실현할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을 잘 꾸린 다음 연구사, 전문가들을 집중배치하여 특정한 산업 즉 반도체 및 정보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 새 재료산업, 생물공학, 생명공학, 우주공학 등 첨단과학기술부문과 경쟁력이 높은 최첨단산업들의 과학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첨단산업부문들을 내오고 높은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

경제개발구는 국제무역, 국제투자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발전하여왔다.

경제개발구의 발생발전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볼수 있다.

첫째 단계는 맹아적단계로서 16세기초 페키니아사람들이 탈항과 카르타고항을 자유항으로 설정한 때부터이다.

1547년에는 이탈리아동북지역의 제노아에 레그호인 자유항이 창설되었고 그후 세계적으로 26개 나라에 75개의 자유항들과 자유무역지대들이 창설되었다.

둘째 단계는 기초형성단계로서 1950년대에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만 창설운영되던 특수경제지대들이 발전도상나라들로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이 시기에 제일 먼저 특수지대를 창설한 나라는 아일랜드(1950년)였다.

셋째 단계는 성숙단계로서 1960년대말~1970년대말까지 세계적범위에서 70개이상의 수출가공구들이 새로 창설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여러 명칭의 경제특구들을 경쟁적으로 창설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단계는 확대발전하는 단계로서 1980년대초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136

개의 나라와 지역들에 3 000개이상의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특수경제지대들이 창설되어 운영되고있다.

지금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그것을 주요거점으로 하여 외화자금의 확보와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제개발구를 창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개발구를 창설하고 운영하려고 하는것은 외국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재정적특전이나 특혜를 제공하여 지역안에서 최신과학기술의 도입과 기술이전의 속도를 더욱 높이자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성공에 작용하는 주요요인들에는 해당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전성, 유리한 자연지리적위치, 집행력이 보장된 투자보호정책과 법률, 유능한 인적자원, 정부가 제공하는 특혜조치의 범위 등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와 같이 경제개발구창설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함경북도의 라선지역만 놓고보더라도 사시장철 열지 않는 깊은 바다와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는 주변 나라들을 끼고있으며 대양과 대륙진출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투자의 효률이 가장 높고 매력적인 《황금의 삼각주》로 불리우고있다.

나라의 유리한 지역들에 경제개발구를 창설하고 전반적인 인민경제를 세계적인 경제발전수준에 하루빨리 올려세우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이며 의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들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에 토대하여 국가의 경제개발구정책집행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국가전반의 경제개발구창설지역과 범위, 방법 그리고 법규작성사업을 다그칠수 있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후원을 받는 조선경제개발협회가 발족하여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단체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특수경제지대들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기 위한 선전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그 진출을 협력해 주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의 경제무역관계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문을 열어놓고 외국투자가들이 희망과 국제관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수 있는 법률적환경을 마련하며 개선완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주체102(2013)년 5월 29일에 처음으로 채택공포되었고 주체102(2013)년 11월 6일에는 경제개발구창설규정, 경제개발

구기업창설운영규정, 경제개발구관리기관 운영규정 등이 발표되었으며 주체102(2013)년 11월 21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으로 각 도들에 특색있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올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의 경제발전전략목표실현의 요구에 맞게 해당 지역들에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해양산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와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을 창설운영하고 그것을 하루빨리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전망적으로는 나라의 여러 곳에 국가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공업개발구와 첨단기술개발구들을 내오도록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발표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의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서 지방마다 경제개발구를 내올데 대한 요구에 맞게 해당 도의 국토건설총계획과 지형학적특성, 도의 경제문화발전수준, 개발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자원상태를 고려하여 경제개발구를 내오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것이다.

모든 일꾼들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리해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야 할것이다.